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747.95 (+231.68)		753.34 (+3.70)
	금리 (국고채 5년)		환율 (원·달러)
	3.880 (-0.015)		1475.35 (-3.05)



‘셀 코리아’ 채권·부동산 전방위 확산 공포

美-이란 ‘격화’ 각국 중앙은행 긴축 헤지펀드 ‘디레버리징’ 진행하고 외국인, 올해 코스피 160조 매도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 “메모리주 투자비중 축소 권고”

한국 반도체주를 주로 팔던 외국인들의 경계감이 다른 자산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서자 위험 자산 회피(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몇몇 해외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금융기관의 독축을 받은 헤지펀드나 투자자들은 자산을 파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산시장이 새로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직면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한국경제의 구조(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계감도 시장 참여를 꺼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의 한국 탈출은 국내 자산가격 하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달러 사자’ 주된으로 이어져 환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 160조원을 순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모습. 이 가운데 서울 용산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평택시, 강원 속초시·고성군 등 5곳(862.8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용산에서는 국방부 경계 외곽의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매도했다. 지난해 전체 순매도(4조6000억원) 물량의 33.78%가 넘는 물량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올해들어서만 각각 78조원, 64조원 순매도 했다.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끈 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셀 코리아’인 셈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들도 한국 투자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모

건스탠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좁은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시장 주도권이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의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20일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제시했다. UBS는 지

난 7일 고객 노트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에탁증서(ADR)는 매수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된 보통주는 매도하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안베스코의 윌리엄 램 공동대표는 “올해 아시아 펀드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60% 이상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면에 계속>

/신화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로봇 정예팀’ 구성… 380억 달러 시장 잡는다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 전망>

노태문 직속 ‘RX 사업추진실’ 신설 우면동 ‘서울R&D캠퍼스’ 메인 거점 이동건 부사장·김현진 교수 등 합류 분야별 최고 전문가 추가영입 계획

삼성전자가 로봇을 반도체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키운다. 대표이사 직속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고 노태문 대표가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양산에 돌입하자 흩어져 있던 로봇 역량을 한데 모아 추격에 나선 것이다.

21일 삼성전자는 차세대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태문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속 RX(Robotics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가 직접 조직을 이끌며 중장기 로봇 전략 수립부터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신설되는 RX사업추진실은 서울 우면동 서울R&D캠퍼스를 메인 거점으로 삼아 로봇 관련 인력의 근무지를 통합한다.

로봇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오피스와 실험실 등 업무 인프라 투자도 지속한다.

구미사업장에는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한다. 로봇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현장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R&D캠퍼스 연구조직과 협업체로 로봇 지능화·제어 고도화를 추진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체계와 데이터 팩토리, 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19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중국·일본에는 글로벌 연구거점을 두고 현지 특화 기술·생태계 활용과 우수인재 확보에 나선다.

조직 격상의 배경에는 양산 국면에 진입한 휴머노이드 시장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 올해 휴머노이드가 연구개발(R&D)을 넘어 양산·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원년으로 진단했다. 실제 테슬라는 이달 중 ‘옵티머스’ 초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규어 AI와 중

국 유니트리 등도 양산 경쟁에 가세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2035년 3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사업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로봇 주요 부품 내재화를 통해 맞춤형 부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중”이라며 “우선 제조형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을 홈·리테일 분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 영입도 이어진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보스톤다이나믹스 운영 방향을 포함한 로봇 전략을 주도한 이동건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이 로보틱스전략팀장으로 선임돼 중장기 로봇사업 로드맵을 맡는다. 지능형 자율 로봇 시스템·로봇 제어 분야 석학인 김현진 서울대 교수와 로봇 핸드·매니퓰레이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낸 김의겸 이주대 교수도 합

류한다. 삼성전자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신설로 사내에 분산돼 있던 로봇 조직은 일원화 수순을 밟는다. 삼성전자는 DX부문 산하 미래로봇추진단, 삼성리서치 내 로봇 연구인력, 생식기술연구소 등으로 나뉜 로봇 R&D사업화 조직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업계에서는 독자 생산라인과 수익성이 확보되면 정식 ‘사업부’로 승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2021년 로봇사업화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이듬해 로봇사업팀을 정규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2023년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590억원을 투자했으며 2024년 말 콜옵션 행사로 지분율을 35.0%까지 확대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매출 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7% 성장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91억 원을 기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부동산 공급대책 속도 실수요자 지원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된 보완책은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영업이익 배분이 노동쟁의의 범위인지도 모호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불평등 주요원인 국민의견 경청, 대안 만들 것”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만들라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투기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부동산 정상화가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사회적 역동성 복원·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오는 23일 열릴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코스피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6일 당국이 마련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보완책이 내달 5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두고 “시행자체를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대응 조치가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를 규정하는 기준이 광범위하다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나. 저 같은 경우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정점식-이준석, 보완수사권 등 논의 합당 “전혀” /사진 뉴시스
▲정청래 측 “후보 차량 파손 유감” 김민석 “즉각 진상 파악”

▲북중 무역, 올 상반기 15억 달러 돌파 2017년 이후 최대
▲경찰청 “전 계급 순환근무 사실무근”…직협 “순환근무 폐지해야”

▲‘래커칠 시위’ 성신여대 5명 불구속 기소 5명 기소유예
▲내달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3배수 추진다…추천위 회의